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9월 1일(주일) 제1506호

## ‘쌀 한 포대’와 ‘성경책’

2024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시작  
9월 29일까지 나눔 대상자 접수 및 순, 개인별 현금

2024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이하 사르밧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Social Venture, 사회적기업)에서 친환경 무농약 쌀 한 포대(20kg)와 함께 성경책을 보급할 예정이다. 육의 양식인 쌀과 영의 양식인 성경책을 동시에 선물하는 것이다<관련 기사 13면>.

2024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 접수는 9월 29일(주일)까지다. 1순위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성도, 2순위 외부 기관, 3순위 외부 개인 순으로 선정한다. 나눔 대상자 접수는 반드시 공동체 담당 목사와 대표 장로의 확인을 거친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공동체 담당 목사와 대표 장로를 참조인으로 설정하고,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공동체 이름과 공동체 담당 목사, 대표 장로 승인 여부도 밝혀야 한다(예: 중종로공동체 노치형 목사님과 이상도 대표 장로님께 승인 받음). 사르밧 프로젝트 신청서는 서빙고와 양재는 이메일(서빙고: 24thanksgiving@naver.com, 양재: dbsansdbs@onnuri.org),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순과 개인은 오는 9월 29일(주일)까지 사르밧 프로젝트 현금을 각 캠퍼스 송금 계좌로 봉헌하면 된다.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



사진은 지난해 사르밧 프로젝트.

35705’이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현금은 쌀 20kg 한 포대 가격(6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하되,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 순에서 현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꼭 기록해야 한다(예: 한강마리아2순). 개인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현금을 송금할 때 이름, 생년월일을 기록해야 한다(예: 홍길동 850128). 개인 참여는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성도들이 봉헌한 현금으로 구매한 쌀과 성

경책은 10월 30일(수)부터 나눔 대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다른 캠퍼스에서는 상황에 맞춰 나눔 대상자에게 전달해도 된다. 쌀 발송을 원하는 캠퍼스는 10월 6일(주일)까지 대상자 리스트를 담당자가 취합해서 서빙고온누리교회 수신처로 접수하고,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공동체 성경읽기 ‘PRS’ ‘JSU Book Club’ 개강

9월 13일부터 매주 금  
오전 9시 30분 서빙고 믿음홀

2학기 공동체 성경읽기(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와 JSU Book Club(Just Show Up Book Club)이 9월 13일(금) 개강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믿음홀(신동아소 펍센터 2층)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간단한 식사와 차를 겸한 교제, 공동체 성경읽기, JSU Book Club 순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함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풍성한 신앙 성장을 꿈꾸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선착순 20명 모집한다. 회비는 학기별 10만 원이다. 9월 13일에는 미국 켈빈신학대학원 강영안 교수가 오픈닝 특강을 할 예정이다.

공동체 성경읽기는 변대섭 목사가 당일 읽을 본문의 말씀을 소개한 다음, 시편-구약-신약-시편으로 구성된 오디오 성경을 약 40분 동안 듣고 읽는 훈련이다.

JSU Book Club에서는 엄선된 신앙 고전을 오디오북으로 함께 들으면서 읽고, 소그룹 나눔을 한다. 이번 학기에는 본 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읽고 나눔 예정이다.

문의: 02-3215-3239(공동체본부)

### 성찬용 포도즙 제조

서빙고 9월 9~10일  
양재 9월 10일

성찬용 포도즙을 9월 9일(월)과 10일(화)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식당에서 제조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성찬팀, 임직대상자 80여 명, 양재 성찬팀, 권사회, 임직대상자 16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기간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는다.

문의: 02-3215-3533(서빙고)  
02-570-7433(양재)

#### 당회

9월 7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주요안간: 평남노회 청원

#### 제직회

9월 8일(일) 2부예배 후  
장소: 서빙고 본당  
주요안간: 평남노회 청원

##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9월 22~28일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가 9월 22일(일)부터 28일(토)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막 오른다. 로잔대회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 시작된 로잔운동에서 비롯된 선교 대회다. 제4차 로잔대회 주제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이다. 제4차 로잔대회 참가자들은 21세기 선교를 위한 열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열 가지 핵심 질문은 ‘다중심적 기독교는 무엇인가’,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뢰의 기반은 무엇인가’ 등이다.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참가자 한 끼 후원 및 매일 기도’가 9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lausanne.kr)나 아노키(Anoki) 기도 앱

에 올라오는 ‘매일 합심 기도문’을 보고 중보 기도하면 된다. ‘한 끼 후원’에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31401-04-303854(사단법인 한국로잔)으로 한 끼 식사비용(2만 원)을 보내면 된다.

제4차 로잔대회 기간 동안(23~27일) 인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대회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070-4940-42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8월 23일과 24일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운영요원수련회가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열렸다. 한국 운영요원 9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기성 목사(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장) 개회예배 설교, 이재훈 위임목사(제4차 로잔대회 공동조직위원장) ‘로잔대회 의의’ 주제로 특강, 저녁 기도

회, 제4차 로잔대회 프로그램 안내, 운영요원 매뉴얼 설명, 박연희 대표(KPC, PCC) ‘국제대회 운영요원 에티켓’ 특강, 팀별 모임 등이 이어졌다.

/ 홍하영 기자

### 9월 14~18일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Harvest)’가 오는 9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행 28:30-31)을 주제로 국가별로 진행된다(국가별 집회 장소 개별 공지). 페르시아, 러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온 이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를 위한 물품 후원을 받는다. 추석선물세트, 텀블러, 간식 등이 필요하다. 후원을 원하는 성도들은 9월 17일(화)까지 온누리M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로 물품을 보내면 된다. 문의: 031-491-9650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마케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선교여행을 했던 바울 일행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여러 차례 선교여행은 언제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여행을 떠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재정비해서 또 다시 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여행에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인구 20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선교여행 때 복음화 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문을 열어주셔서 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결국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3년 가까이 지내면서 장기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이 연기되면 실패한 것이며, 꿈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지만, 연기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구나’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영원한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기는 더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 세례의 축복

에베소 지역에서는 두 가지 특별하고 두드러진 사역이 나타납니다. 첫째,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 세례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의 신앙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욱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강건하고, 확신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날마다 의심과 유혹에 휩쓸리고 무너지는 신앙이 있는 반면 다른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성숙하고, 강인한 신앙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뚜렷한 신앙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세례입니다.

〈요한복음〉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

## 성령과 주의 말씀

사도행전 19:1~20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성도임에도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확신, 성숙함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경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확신과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모시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R.A. 토레이는 이것을 ‘잠재적 사건’과 ‘체험적 사건’이라는 단어로 구별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연합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잠재적 사건’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을 설명하실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남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거듭남의 신비는 우리가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체험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들은 거듭남 이후 우리가 체험하는 느낌의 경험이지, 거듭남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신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는 잠재적 사건으로써 신비로운 일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체험적 사건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는 모든 성도와 한 몸임을 느낍니다.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한 몸 됨,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 절제합니다. 감정도 절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다른 지체들을 배려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이미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때”라고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사람들은 아직 믿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진정 믿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분들은 성령의 세례가 거듭남과 동일한 거

라고 주장하는 해석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어색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인데,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제자들’이라고 한 것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한 것 자체가 이미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입니까? 그 의미는 내가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체험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자각할 수 있느냐, 인식할 수 있느냐,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그 자체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령의 세례는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거듭남 이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체험하는 것이지 거듭남 그 순간을 우리가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능력과 확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율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성령의 세례가 온다는 법칙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역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세례의 체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란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사건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듣고 믿었지만, 성령님을 알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존재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령님을 ‘잊혀진 하나님’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잊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잊힌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령과 주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물질로 이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과 주의 말씀을 의지해 사회 변혁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귀신도 놀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시고,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게 하고, 우리를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온전히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성령님을 사모 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원 하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 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 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 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 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두 사람 정도였습니다.”(4~7절).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요한의 세례는 그저 착한 행위를 위 한 서약에 불과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 례가 임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패턴을 보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때 동 시적으로, 어떤 사람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사 람은 물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어떤 사 람 물세례를 받은 훨씬 이후에,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 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우리는 확신을 누리 고,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 인이 됩니다. 때로는 은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을 보면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가 나타 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은사도 없이 능력과 확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은 사, 섬김의 은사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과 사역자 파송

둘째, 두란노 서원을 통해 사역자들을 훈련 해서 아시아 전역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이 두란노 서원에 서 훈련받은 이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목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 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 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 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9~10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의 개인 서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을 비방하고 대적하자 작은 서원에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2년 동안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학교 훈련 기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바울 일행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들을 훈련하 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주 의 말씀의 역사가 연결되어 순환하는 것입니 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성령과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였습니다. 교회사를 통 해 나타난 모든 부흥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에베소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18장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말씀 사역과 무관 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해서 주 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지만,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클라우디오 총독 의 칙령으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 을 만나고, 그와 함께 에베소에 정착한 신실 한 동역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덕 분에 아볼로가 더욱 분명하게 복음을 깨달았 습니다. 그 사역의 토대 위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람들은 주 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배웠다고 했

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들이 모인 시간은 오 전 11시부터 오후 3~4시였습니다. 무더운 날 씨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 비어있 는 시간입니다. 모이기 어려운 그 시간에 그 들은 더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 함 때문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육신 의 피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 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성령의 세 례 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고, 주의 말 씀의 사모함은 또 다른 성령의 역사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주의 말씀은 언제나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동행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향하게 되고, 주의 말씀 을 향하는 자들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 통로가 됩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 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1~12절, 개역개정).

에베소에 있던 많은 우상들, 마술로 인하여 귀신들이 성행하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놀 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 자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흥분을 내서 “바 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 사람 대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그렇게 했습니 다. 그들이 선포하자 악한 영이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고 했습니다.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너 희는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놀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 포하면 악의 영이 떠납니다. 믿지 않으면서 이용하려고 하면 “너는 누구니?”라고 귀신이 조롱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고 내쫓 을 때 악한 영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도 안다”고 대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주의 말씀의 역사가 사회적 영향력으로 일어났다!

그때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마술책이 유행했습니 다. 그러니 귀신들도 유행했습니다. 에베소에 서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을 믿고 회개하자 자신들이 의지하던 마술 책 을 모두 불에 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 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 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 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 태워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 책들의 값을 매겨 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 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 있 게 퍼져 나갔습니다.”(17~20절).

5만 드라크마는 오만 명의 하루 품삯입니 다. 한 사람의 139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매우 많은 돈입니다. 에베소 도시가 변화된 것입니 다.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신들의 재산을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 의 행위가 얼마나 거저되고, 악한 것임을 깨 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주의 말씀의 역사가 사회적 영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 우리나 라에서 일어난 사회 변혁이 있습니다. 노비 제도가 폐지되고, 축첩제가 폐지되고, 조혼이 철폐되는 등 사회의 구습들이 변혁되었습니 다. 성령과 주의 말씀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의 변화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회의 불리 함, 정직하지 못한 것, 더러움, 악의 영들이 관 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물질로 이어집니 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 다. 한국 교회가 성령과 주의 말씀을 의지해 서 사회 변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에 베소와 같이 우상의 도시, 마술의 도시, 귀신 이 판치는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되어서 귀신도 놀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 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제4차 로잔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이재훈 목사

# “로잔, WCC 선교의 ‘인간화’ 반대해 일어난 운동”

제4차 로잔대회가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제1차 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제2차 대회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3차 대회는 2010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다. 이번 제4차 대회는 직전 대회 이후 14년 만이고, 첫 대회 후로는 50년 만이다. 50년은 성경에서 ‘히년’을 의미한다. 제4차 대회를 약 한 달가량 앞두고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한국로잔 이사장)를 그가 담임하고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만났다. 이목사는 약 4년 동안 이 대회를 준비해 왔다고 한다. 그는 이번 로잔대회가 한국 교회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로잔운동’과 관련한 교계 일각의 부정적 주장과 우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아래는 이 목사와의 일문일답.

/ 김진영 기자(기독일보), jykim@cdaily.co.kr

**제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계기는?**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했던 건 아니다. 로잔운동 국제본부의 제안과 요청이 있었다. 처음엔 두 번 정도 사양했었다. 다른 나라에서 개최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정도의 뜻만 전달했다. 그러나 50주년 로잔대회를 치를만한 교회들이 있는 곳이 한국 외에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번 대회 준비에 있어서 과거 세 번의 대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세 번의 로잔대회는 국제본부 주도로 치러졌다. 각각 스위스와 필리핀, 남아프리카에서 열렸지만, 대회 비용 등에서 호스트 국가가 부담하는 정도가 적었다. 그러나 제4차 대회는 호스트 국가인 한국이 준비에 적극 참여하는 첫 대회라 할 수 있다.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전에는 이런 직책이 없었다. OMF(Oversea Mission Fellowship) 전 총재인 패트릭 펑(Patrick Fung) 선교사가 이번 대회 프로그램 의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추천했다. 이처럼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선교 리더들이 과거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대회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떤 준비가 있었나?**

“전 세계를 12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선교 상황을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조사했다. 예수님의 ‘지상대명령’(Great Commission)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것이다. 이 ‘글로벌 리스닝 콜’(Global Listening Call) 과정을 통해 전 세계 복음주의 사역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정리하고, 150여 명의 선교 전문가들이 영역별로 <지상명령현황보고서>(the state of Great Commission)를 만들었다. 로잔대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이렇게 객관



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읽고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는 면에서 중요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

**로잔운동의 특징 중 하나가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책임’을 강조한 것인데, 대회를 거듭할수록 복음 전도보다 사회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다는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저는 로잔운동에서 사회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로잔의 모든 문서에서 복음 전도라는 말이 사회책임보다 많이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이 복음 전도에 우선할 수 없다는 표현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로잔대회는 선교에 대한 문서운동으로도 볼 수 있다. 신학적 토론의 결과를 문서로 남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 번의 대회를 통해 <로잔언약>,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서약>이 도출됐고, 이 문서들은 모두 연속선상에 있다. 다시 말해, 어느 한 문서만 가지고 로잔운동을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모든 문서를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로잔운동이 사회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사회책임’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복음은 총체적이다. 복음 전도와 사회 책임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다. 2차 세계대전은 기독교 나라인 독일이 일으켰고, 역시 기독교 나라인 영국 등과 싸웠다. 그렇게 전쟁으로 유럽이 초토화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유럽을 다시 일으키는 데 크게 공헌한 게 바로 미국의 선교단체 YFC다. 밥 피어스 윌드비전 창립자와 빌리 그레함 목사가 모두 이 단체 출신이다. 그들은 유럽에서 구호사역을 펼치며 배고픈 이들에게 먼저 빵을 주었다. 복음의 정신으로 긍휼을 베풀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은 복음 전도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로잔이 강조하는 이른바 ‘총체적 선교’와 WCC(세계교회협의회) 등 에큐메니칼 진영의 ‘통전적 선교’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로잔이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것을 WCC의 선교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는 건 로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로잔은 WCC가 선교의 목적을 이른바 ‘인간화’로 보는 것에 반대해 일어난 운동이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게 바로 로잔이 강조하는 온전한 복음이다.”

**로잔운동이 동성애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구를 중심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지기 시작한 시점이 2011년부터다. 2011년 브라질, 2012년 스페인, 2015년 미국 순으로 퍼지면서 확대됐다. 그러나 로잔운동은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입법 활동까지 감시하며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조직력이 있지 않다. 12개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 리더들이 있을 뿐이다. 2010년 3차 대회까지는 동성애 흐름은 있었지만, 합법화되는 일은 없었기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로잔운동이 침묵했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고,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고 말하면 역사적 시점과 상황을 오해한 것이고, 로잔운동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다. 막강한 경제·군사 제한권을 가진 유엔이 있어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가. 3차 대회 이후 일어난 동성혼 합법화 흐름에 대해서는 이번 4차 대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제4차 로잔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지는지 말해줄 수 있나?**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제 주변에도 동성애 문제를 제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좀 믿어 달라’고 말씀드린다. 저는 누구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지난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을 때 국회 앞에 나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 제가 이번 제4차 로잔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직 대회 전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 대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 나올 것이다. 한국에서 로잔대회가 열리는 게 ‘어쩌면 한국 교회에 시대적 소명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제4차 로잔대회에서 <서울선언문>이 나온다. 이 선언문 작성위원으로 한국에선 누가 참여했나?**

“제4차 로잔대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최형근 교수님과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의 스티브 장 교수님이다.”

**대회 참가비가 다소 비싼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참가비는 적게는 3백 달러(약 40만 원)에서, 많게는 2천 달러(약 266만 원)까지 책정돼 있다. 이전 대회에선 1천 달러(약 133만 원) 안팎으로 일괄적이었지만, 이번엔 참가자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차등을 두었다. 형편이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는 장학금도 준다. 참가비는 대회 준비와 운영에 대부분 쓰인다. 물론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대회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대회 장소가 인천 송도컨벤시아다. 교회가 아닌 이유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파이해할 것이다. 교회에서 하기는 어렵다. 로잔대회 참석자들이 그저 앉아서 예배만 드리지 않는다. 소그룹으로 흩어져 회의하는 시간도 많고, 그밖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 교회보다 컨벤션 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회가 이제 20일 정도 남았다. 소감이 어떤가?**

“지난 약 4년 동안 이 대회를 준비해 왔다. 여러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잘 준비해온 만큼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로잔에 대해 ‘종교통합 운동이다’, ‘WCC 계열이다’ 등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이때 한국 교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 기독교를 이끌었으면 한다. 그러려면 우선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4차 로잔대회가 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 교회가 진정 선교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로잔운동에는 전 세계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그들과 함께 대회를 치름으로써 더욱 더 선교에 헌신하기를 바란다.”

\* 이 글은 지난 8월 22일 <기독일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전재했습니다.



##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로잔 정신과 세계관(2)

## 로잔 운동은 성경적 세계관의 선포식

제4차 로잔대회가 다가오면서 로잔 운동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기독교 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가 재생산되어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로잔 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주류를 이루는 내용은 주로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통합적 성향’, ‘성경 무오성 훼손’, ‘신사도 운동과의 연관성’과 같은 것들이다. 유튜브가 확대 재생산하는 거짓 뉴스의 일관적 성격에서 볼 수 있듯이, 거짓 뉴스 영상들은 본래의 목적과 그 내용이 미칠 역기능적 영향이나 파장과는 무관하게 자기선전을 통해 조회 수를 늘리고, 자극적 선동을 통해 알고리즘을 형성해 한국 교회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고 미혹하는 영적 차원을 띠고 있다. 이러한 거짓 뉴스는 단순히 정보의 왜곡 차원을 넘어 교회 생태계의 혼란을 초래하며, 변형되고 변질한 신앙을 조장한다. 로잔 운동을 비판하는 유튜버들의 문제는 성경에 대한 왜곡되고 경도된 해석과 함께 로잔 운동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하는 일차 문서, 즉 로잔대회의 주요 문서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알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 문화의 세계관은 그 문화에 속한 사회구성원의 삶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척도이다. 거대한 문화적 흐름 가운데 세대를 걸쳐 습득되고 학습되며 공유되는 세계관적 전제들은 사회구성원의 시각과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이 점에서 교회가 복음과의 해석학적 순환을 지속하며, 올바른 성경 읽기와 건전한 신학적 해석학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로잔 운동의 성격

은 유튜브나 가상 공간을 떠도는 변질하고 변형된 유행 정보(deformation)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복음에 근거한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 백성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해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리(doctrine)는 이치나 원리를 의미하기에 세계관적 차원을 띤다. 올바른(orthodoxy) 교리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경>처럼 그 자체로 신앙 고백적 특성을 나타낸다. 세계선교를 위해 50년 전 시작된 로잔 운동은 선교운동이며, 고백 운동이다. 그렇게 로잔 운동의 주요 대회 문서는 언약(covenant), 선언(manifesto), 서약(commitment)이라는 성경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신앙은 지적인 차원이전에 정서적 차원을 띠며, 더 나아가 신앙의 신비를 체험한 감정(orthopathy)으로 살아내는 의지적으로 올바른 삶의 실천(orthopraxy)을 지향한다. 참된 교리는 세계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는 성경적 지도나 안내 지침과 같다. 하나님 백성공동체를 허물어뜨리기 위해 사용되는 교리는 다분히 바리새주의적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라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 2:27-28)고 말씀하신다. 교리가 율법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분열된 세상을 약화시킨다면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다.

로잔 운동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성경적이

다. 존 스토틀(John Stott)가 강조했듯이, 로잔 운동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세상의 소리를 경청하는 ‘이중 경청(Double Listening)’을 지향한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본질과 복음을 담는 지역의 문화적 형태를 선교적으로 숙고하는 ‘상황적 접근’은 세상에 대한 로잔 운동의 이해를 대변한다. 복음과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는 항상 복음에 의해 해석된 교회의 정체성과 삶의 전망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로잔언약은 주로 신학적인 명제들을 중심으로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주제들을 제시하므로 복음주의 진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하나님의 목적, 성경의 권위와 능력,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뿐 아니라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총체적 접근과 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다루면서 이 세상이 제시하는 상대주의적이고, 종교 다원주의적 세계관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대항문화(counter-culture)와 대항 정체(counter-identity)를 강조한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성경의 서사적 성격을 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신앙에 근거해 인내의 발효로 복음을 살인한 초대교회의 삶의 방식을 담아낸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제공하고, 확고한 신앙의 토대를 제시한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교회의 선교를 주도하며, 그

결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수되면서 하나님 백성의 기억과 소망을 형성하며 복음증거의 내용을 지배한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교회의 순결함(purity)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변혁하시는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선교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다루며, 그 중심이 십자가의 구속하시는 승리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는 바로 이 백성에 속하였으며, 이 백성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백성의 선교에 동참한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4차 로잔대회 공식 문서인 ‘서울 선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형성되는 본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

다. 로잔대회를 내다 보며,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을 향해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귀를 열고, 그 복음을 절실하고도 치열하게 살아내려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소원한다.



최형근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한국로잔위원회 총무)

## 특별기고

## 낙태가 미국의 주요 정당을 타락시킨 방법

지난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전당대회장 박 주치된 캠프카에서 무료 낙태 및 정관수술 서비스를 제공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이동식 낙태 클리닉에서 이를 동안 20~30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낙태약과 응급 피임약도 배포했다. 미국 가족계획연맹 대변인에 따르면, “대법원의 뉘스 판결 이후 낙태를 제한한 주에서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해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이었다”고 한다.

대회 참석자들은 ‘프리다 웜(Frieda Womb)’이라는 약 6m 높이의 자궁 내 장치 형상을 한 대형 풍선으로 환영을 받았다.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이후 미국 내 피임 및 낙태 접근성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국 피임단체인 ‘피임을 위한 미국인’이 컨벤션 센터 입구에 설치한 것이다.

2024년 민주당은 만화 같으면서도 섬뜩한 모습으로 낙태에 대한 충성을 선언했다. 공화당이 올해 생명과 결혼 문제에 대한 당의 강령을 뒤집은 것이 잘못이다. 하지만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극단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밝히는 정당이 어디인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이당의 대통령 후보는 주요 정당 후보 중에서 가장 강경하게 낙태를 찬성하는 정치인이다.

항상 이런 식은 아니었다. 로버트 배런 주교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이동식 낙태 클리닉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 낙태에 대한 민주당 지도자들의 ‘놀라운 진화’를 언급했다. 배런 주교는 “내가 젊은 시절에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제시 잭슨 목사, 조 바이든처럼 저명한 민주당원들이 열정적인 프로라이프 옹호자였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이 언제 견해를 바꿨는지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90년대 낙태는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드물어야 한다”고 훈계했던 빌 클린턴의 말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의 아내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출산 순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낙태를 지지했다.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낙태에 대해 “가톨릭 양심과 강력하게 씨름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아들 앤드류는 이른바 ‘재생산권’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시의 고층 빌딩에 불을 밝혔다.

우리는 지금 정확히 어디에 와 있을까? 지난해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는 ‘낙태 실패 후

살아서 태어난 아기에게 의사가 연명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 사항을 삭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다시 말해 그는 영아 살해를 합법화했다. 팀 월즈는 현재 미국 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 입후보했다. 배런 주교에 따르면,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한때 낙태가 비극적인 일이라고 인정했던 정당의 ‘끔찍한 쇠퇴’를 상징한다. 낙태는 축하해야 할 일이며, 심지어 퍼레이드에서 사탕처럼 나눠주기도 한다.

《로마서》 첫 장에서 바울은 인간이 불의를 통해 어떻게 ‘진리를 막는지’를 설명했다. 그 결과, 인간은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들의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지고, 더 많은 불의로 이어진다. 도덕적 타락은 인간이 더 말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결국에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것으로 계속된다. 낙태를 후회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신체의 절대적 자율성을 축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인간은 천부적 의무나 타인에 대한 의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리된 개인이라는 생각이 정치화되면서 성은 남성과 여성, 여성과 아동 간의 제로섬 관계의 권력 투쟁으로 변질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유혈 사태가 항상

불가피했다.

인간은 서로에게 영원한 권력 투쟁을 벌이는 분리된 권리들의 꾸러미가 아니다. 우리는 엄마와 태아 사이의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인 유대감만큼이나 상호 의존적이다. 자궁 안팎의 아기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상기시켜주지만, 절대적인 자율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진리를 막는 것이다. 결국, 아기가 생기는 것을 막고 아기를 버리는 일이 일종의 정치적 성사가 되어 만화 같은 수준의 축하를 받게 된다. 이 나라에서 낙태에 대한 입지가 돌아선 것은 분명하다. 물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시카고에서 벌어진 끔찍한 전시 행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이 문제에 걸려 있는 모든 것을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과 정당, 국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 존 스토틀(척 콜스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세인 모리스(콜스 센터 선임작가)  
원문: breakpoint(20240826)

## 이 시대 부모들에게

## 멈춰서서 자녀에게 물어라!



채경선 교수  
(성산호대학원대학교  
가족상담학과)

부모는 자녀에 대해 모르는 게 참 많다. 어느 날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무릎을 다치고 집에 들어왔다. 엄마는 아이의 다친 모습을 보고 놀라고 속상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지! 더운데 왜 나가서 다치고 들어오니?”

엄마가 아이에게 호통을 쳤다. 그 상황에서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밖에 빨리 다시 나가야 하니 밴드부터 붙여달라고 말한다. 엄마가 또다시 화를 냈다.

“너 정말 말 안 듣는구나? 저기 벽에 가서 손들고 서 있어!”

엄마 입장에서 보면 다치고 돌아온 아이, 흠뻑 땀이 났던 아이를 빨리 씻겨야겠다는 생각만 들 것이다. 그리고 버릇없이 구는 아이를 혼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밖에서 놀다 온 아이에게는 엄마가 보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날 아이는 야구를 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야구를 했는데, 안타 치고 일루로 달리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을 다쳤다. 그래서 다른 주자를 세워놓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 얼른 집에 가서 밴드만 붙이고 올 테니까 너희 잘하고 있어. 나 얼른 갔다 올게!”

집에서 밴드만 붙이고 얼른 야구하러 다시

가고 싶은 아이에게 엄마는 아이의 마음은 모른 채 화만 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난다. 한 번쯤 아이에게 “왜 그렇게 밖에 나가려고 하는 거야?”라고 물어봤다면 좋았을 것이다.

‘기능적 맥락주의’라는 말이 있다. 사건의 맥락(상황, 역사)을 통해 문제의 속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행동을 분석하는 일은 맥락 안에서 평가해야 한다. 맥락주의적 관점에서는 심리적인 사건을 떼어내면 문제의 속성이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다. 한 사건을 맥락으로 보기 위해서는 쉽게 판단하지 말고, 잠깐 멈춰 보고, 선불리 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전후 상황을 들어야 한다.

상담에서 ‘모름의 기술’이라는 게 있다. 상담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강조되는 기술이다. 모름의 기술을 예로 들면 이렇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와서 막 화를 내며 서럽게 운다. 내담자가 서럽게 우는 것은 상담자가 모르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상담자는 그때 내담자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기 위해 질문해야 한다. 내담자가 왜 그렇게 서러운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상담자는 모르기 때문에 멈춰 서서 물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내담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모름의 기술이다.

우리는 모르는 게 정말 많다. 우리가 가진 시각의 한계, 지혜의 한계 등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 많다.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

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다. 지팡이를 생각해 보라. 지팡이가 멀리까지 우리의 안전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지팡이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한 걸음을 안내할 뿐이다. 한 걸음, 거기까지만 안전한지 알려주고, 그래서 또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고, 결국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목표에 다다른 것이다.

우리에게는 저 멀리까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큰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안다고 여긴 만큼 쉽게 재단하고, 아는 만큼 판단해서 자녀에게 너무 거칠고, 무례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멈춰서서 물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자녀의 이야기를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렇기에 꼭 멈춰서서 물어야 한다. “네 마음은 어때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얼마나 힘든 거니?”, “너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늘 자녀의 마음을 물어볼 줄 아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우리는 한계 많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기에, 내일을 모르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기에, 자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기에 늘 물어야 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부모에게 3편 부모,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4. 협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 같죠?



그래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거라는 것을요!



우리가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롬 8:28

## 차세대 여름 아웃리치 간증

## 감사와 깨달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아웃리치를 다녀오긴 했지만, 이번 아웃리치는 처음으로 혼자 가게 되어 더욱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우간다 아웃리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웃리치 준비모임을 하면서 진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준비한 짐이 많아서 실감이 났고, 그 많은 짐만큼이나 더 열심히 사역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간다 모요 지역으로 8월 8일부터 16일까지 8박9일 동안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사역은 3번에 걸친 캠프 사역과 스포츠 활동, 영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간증문 발표, 땅 밟기 등이었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신기하게도 사역하는 동안 지치지 않고 씩씩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날, 짐이 있는 차에 기름을 잘못 넣어서 그것을 빼내고 청소하느라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미처 마치지 못한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총 500여 개 페이스 페인팅 스티커 자르기, 영어 간증문 소개를 위한 간증문 작성하기 등을 무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첫 사역을 제

대로 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다음 사역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배를 타러 갔습니다. 일찍 도착했는데도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겨우 배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고, 차를 타고 2시간 정도를 더 가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길이 험했는데도 아무도 멀미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난민촌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긴장되기도 했지만, 빨리 가지고 온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우간다까지 그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게 힘들었지만, 막상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했습니다. 둘째 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비눗방울과 바람개비를 가방에 넣고 있는데 정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사역 준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계속 방해하는 영적 싸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과 스포츠 활동으로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5:0으로 졌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기지 못해도 행

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풍선을 나눠주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무언극을 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 멀리 날리기도 했습니다. 미디어 없이도 잘 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우간다 아웃리치에서 깨달은 점이 많습니다. 특히 미디어 금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고, 기도와 큐티하는 시간을 늘릴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와 큐티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간다 아웃리치 사역을 마치고 열병을 겪었습니다. 39도가 넘는 열과 두통, 구토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사역이 끝나고 아파서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사역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아웃리치였습니다.



송한비 학생  
(도곡 파워웨이브)

## 온누리 QUIZ



1. 온누리교회는 매해 여름 7~8월 두 달 동안 이 사역을 해요. 해외 선교지나 국내 농어촌교회, M센터, 군부대 등을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등의 사역을 해요. 이 사역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2. 올여름, (1)번 답을 다녀온 친구들이 있나요? 어디를 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왔나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온누리신문>에 알려주세요.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생명의 가치와 존엄한 죽음

1. 안락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2.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의 해외 현황과 부작용 3. 안락사의 실체와 의학적 문제점  
4. 안락사 논의 전 선결과제 - 호스피스 완화의료 5. 성도의 죽음과 임종기 돌봄의 실재

## 성도의 죽음과 임종기 돌봄의 실재

## 우리가 바라는 존엄한 죽음에 관하여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성산생명  
윤리연구소 부소장)

죽음의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검색해 보니 ‘어둠과 침묵’, ‘해골과 뼈’, ‘낯을 든 사신’ 등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나타났다. 그다음 ‘병상에 누운 연약한 인간’, ‘묘지’, ‘빈방과 떠나간 자리’ 이미지가 뒤를 이었

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떠올리는 죽음은 무엇일까? 전술한 것에 더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떠오를 것이고, 부활과 천국도 연상될 것이다. 찬송가 260장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라고 고백하고 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밝게 빛나는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적인 죽음이다.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영혼으로 몸만 살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자만이 살아 있는 영혼을 가진 것이다. 둘째, 의학적으로 심폐 기능이 멈추는 물리적 죽음이다. 우리가 목격하는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다. 영혼이 몸을 떠나가면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된다. 셋째, 영원한 죽음이다. 살아 있는 동안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영원한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육신의 죽음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간다.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끝이야”라고 쉽게 내뱉는다. 이 땅에서 아픈 몸으로 고생하느니 더 나빠지기 전에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예도 있다. 이것이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는 안락사의 철학이다. 하지만 영적 존재인 인간은 이에 쉽게 수긍하지 않는다.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면 누구에게나 삶과 죽음의 세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난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남은 삶 동안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 등 가치에 대한 질문이 든다.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을 ‘인간의 영성’이라고 한다.

영적 돌봄의 실체,  
‘복음이 전해지는 돌봄’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히 충족된 상태라고 정의했다. 영적 건강은 ‘개인의 영성이 어떻게 충족되는가’에 달려있다. 영성은 단지 종교인들의 경건이나 신과의 교감 같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학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넓은 의미로 ‘삶의 의미와 목적, 상호 관계성 그리고 초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환자의 돌봄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과 함께 영적 영역을 포함해 시행하도록 정했다. 안락사가 합법화된 해외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택하는 이유는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다. 85% 이상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영성의 문제’라고 답하고 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자.”

상을 등졌다. 인간이 아무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고통을 잘 이겨냈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경우, 즉 영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력자살과 안락사 논의가 불거지는 이 시대에 말기 환자 돌봄의 핵심이 ‘영적 돌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적인 고통을 인지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면 환자는 생명을 불꽃 힘이 생기게 된다.

영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고통이 드러난다. 첫째, 인생에 대해 허무감을 느끼게 된다. 둘째, 후회와 분노와 실망감에 빠지게 된다. 셋째,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원망과 낙담이 일어나게 된다. 넷째,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게 된다. 이와 같은 영적인 요구는 돌봄 제공자의 공감과 조언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충족되고 해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돌봄의 실체는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는 돌봄이어야 한다. 그 외의 것으로는 영혼의 생명을 결코 살려낼 수 없다.

## 복음을 전하는 ‘영적 돌봄’

현재 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의료에서 행해지는 영적 돌봄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돌봄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 호스피스에서는 환자의 장점과 인생에서 잘한 일을 돌아보게 한다. 신체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스스로 설정하게 해서 존재 의미를 찾도록 도와준다. 여기서 성도의 돌봄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환자에게 남겨진 삶의 의미는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환자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거하시기에 연약한 육신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줘야 한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삶의 목표가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둘째, 환자가 다른 이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한다.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사랑의 인사를 하고, 화해하도록 중재해준다. 성도들의 돌봄은 그 사랑의 근원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스스로 버림

받은 것 같고, 쓸쓸히 죽어가는 줄 알았던 순간에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양금이 쌓였던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다면 그보다 온전한 사랑의 완성이 없을 것이다.

셋째, 일반 호스피스에서는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신의 사랑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물으며 희망을 품도록 돕는다. 병 걸린 것에 대해 신을 원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자책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그 감정을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환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질병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온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귀히 쓰실 그릇도, 천히 쓸 그릇도, 그분의 권한으로 빚으시기 때문이다. 질병에 걸렸거나 육신이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중요하다.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움이 있는 환자에게는 예수님의 죄 사하심으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알려줘야 한다.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죽는 날 바로 천국에 이른 예수님 십자가 오른 편이 강도 이야기를 해주자(눅 23:43).

넷째, 죽음 자체와 그 이후의 두려움으로 고

통받는 이들에게 의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임종의 임상적 과정과 끝까지 돌봄을 지속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사후세계 두려움에 대한 영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뿐이다. 아무리 죽음의 현상을 설명해 주고, 환자의 몸을 안 아프게 살펴준다고 해도 말씀이 없다면 영적 죽음을 막을 수 없다. 환자에게 죽음 이후에는 무서운 지옥 심판이 있다는 진리를 알려줘야 한다(히 9:27).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 생명을 누리게 됨을 알려줘야 한다(요 5:24). 확신을 갖도록 기도해줘야 한다. 돌봄의 마침표는 기도다.

이 귀한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데, 환자가 이미 임종기에 접어들어 의식이 저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있다. 인체에서 가장 나중까지 지속하는 감각이 청각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보여도 반응할 힘이 없어서 눈을 감고 있을 뿐 다 듣고 있다. 임종 직전 어머니가 막내가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마른 눈에 눈물을 흘리고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임종기 환자는 마지막까지 듣고 반응한다. 귀가 안 들리는 환자도, 정신이 없는 치매 환자도 그 영혼이 듣고 반응한다. 임종기 돌봄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환자에게 끝까지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을 듣고 부드러운 사랑의 인사를 받으며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존엄한 죽음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았다. 그리스도의 유익만 추구했던 바울은 육신의 몸으로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았다(빌 1:20~21).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오히려 육신의 몸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고대했다(빌 1:23). 그러나 육신에 머물러 있는 동안 복음의 열매 맺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빌 1:25). 성도는 죽음이라는 성화의 마지막 단계를 통과해 완전하게 의인이 된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히 12:23). 복된 죽음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안락사 허용이라는 사탄의 법이 온 세계를 휩쓴 시대에 성도들이 더욱 깨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자. 간병에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을 통해 이웃과 공동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딤후).

맛있는 말씀 해설

##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 6:34)

급변하는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간다. 그 불안과 두려움 이면에는 염려와 근심이 자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막연한 염려 때문에 몸과 마음,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로 인해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하는 것마저 놓치는 게 안타까울 때가 있다.

왜곡된 염려가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다. 그런데 정말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의미일까? 본문의 맥락을 살펴볼 때 위 구절은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 말씀이다. 천국 백성의 윤리를 다루면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방인들의 삶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음식과 의복 문제를 염려하는 듯하다(25~30절). 현대인들에게는 의식주 문제에 해당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는 염려 대부분 여기에서 비롯되

고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염려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분열하고 병들게 하기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염려는 주변 다른 사람까지도 걱정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노력, 공부, 미래의 계획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염려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는 의미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25절, 31절, 34절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주의해서 읽어보면 그 진의를 알 수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 그러므로(25절) 묵숨과 몸이 더 중요함을 너희는

알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꽃보다 너희가 더욱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31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34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산상수훈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게 염려에서 해방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간단하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세대에서 동떨어지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 다음 현실적인 문제(물질, 죄, 시련)를 구하셨기 때문이다. 다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준다는 뜻이다. 그 이유를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내일의 시간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 내일의 염려는 오직 시간의 창조자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면 세상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삶

9월 2~8일

〈느헤미야〉 2:1~5:13



바사(페르시아) 제국의 왕 앞에서 모든 요청을 응답받는 느헤미야에게 머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묵상하자.

▶바사 왕 아다사스다가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을 알아본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왕에게 고국의 상황을 아뢰다. 왕이 호의를 보이자 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 줄 것과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왕의 조서와 공사에 필요한 재물을 요청한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한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나가 무너진 성벽을 돌아본다. 그런 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경위를 간증하며 백성에게 성벽을 재건하자고 독려한다. 반대 세력인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은 이 일을 비웃는다.

묵상포인트 1: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다. 동족의 환난을 전해 듣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한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선한(은혜로운) 손으로 함께하시며 길을 열어 주신다.

묵상포인트 2: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생존 문제를 넘어 신앙 공동체 재건을 위해 중요했다. 성벽 재건 과정에 언급된 인명과 지명은 다양한 이들이 각자 위치에서 헌신했음을 보여준다. 술선수범하는 지도자와 백성의 자발적 헌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묵상하자.

▶느헤미야 주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된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에서부터 성벽을 건축해 거룩히 구별하고, 그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한다. 제사장, 레위 사람, 여자, 고위 관리, 금장색, 상인 등 다양한 사람이 동참해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성벽을 재건한다. 지도자의 지혜로운 분담과 모두의 자발적 헌신으로 샘문, 수문(물문), 마문(말문), 동문, 함입갯문을 거쳐 공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양문까지 이어져 성벽 재건이 마무리된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대적의 방해로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대적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독려하며 성벽 재건을 이어간다. 위기는 외부에서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생긴다. 대적의 방해로 막아 내며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묵상하자.

▶성벽 재건을 싫어한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랏과 도비아다. 그들은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한다. 느헤미야는 대적을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하

나님만 바라보라고 독려한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 적의 공격에 대비해 백성이 스스로 방어하며 건축을 하게 하고, 자신도 그와 같이 행한다. 외부적으로는 대적이 위협했고, 내부적으로는 가난한 백성의 원망이 표출되었다. 흉년이 들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거나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었다. 느헤미야는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 이들을 강하게 꾸짖어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선한 손길로 응답하셨다. 나의 기도에도 선한 손길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신 일을 간증하며 성벽 재건을 독려했다. 진솔한 간증은 감동과 도전을 준다.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나의 간증을 준비하고 전해 보자. ▶성벽 재건에는 다양한 이들이 형편과 능력에 따라 동참했다.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살피고 헌신해 보자. ▶사기를 꺾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일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이 있을 때 그에 직접 맞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보자. ▶느헤미야는 술선수범하며 좋은 리더십을 보였다. 직위나 특권을 내려놓고 모범을 보이며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힘쓰는 한 사람이 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 아하마드 형제를 위해서!

남양주M센터 아하마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시요. 아하마드 형제는 무슬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지난해 8월 안산M센터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하마드 형제는 인도어 예배를 섬기기 위해 매주 하루 수익을 포기하고, 7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등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홀로 한국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참으며 14명이나 되는 가족과 친인척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무게를 술로 이겨내려 했던 게 그의 몸을 병들게 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7일 동안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있었습니다. 깨어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형제는 기적처럼 깨어나 퇴원했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도 희년의료공제회와 기아대책기구,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마드 형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도어 예배 형제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하마드 형제가 지난 8월 31일 인도에 있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가족들 모두 무슬림입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주시요.

/ 서영찬 선교사(남양주M센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 하나님과 대화를 놓지 말고, 기도하라!

“우울,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본다.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과 보내고 있는가? 지하철을 타면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왜 그럴까? 많은 분석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도파민’을 주요한 요소로 꼽는다. 도파민은 신경세포 간 시냅스를 오가며 신경회로를 활성화하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다. 뇌의 보상회로에서 분비돼 자극에 대한 보상을 예측하게 해준다. 큰 자극이 없는 평소 상태를 100%라고 가정한다면, 쇼핑 또는 게임으로 인해 분비되는 도파민 수치는 정상시의 150%까지 올라간다. 복권 당첨 또는 이성에게 고백받았을 때 수치는 500~800%까지 올라가고, 마약류에 손댔을 때는 1300% 이상까지 도달한다고 한다. 보상회로에서 도파민 ‘민감도’가 감소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상회로에서 도파민 ‘농도’가 감소하면 ‘우울증’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우울증 원인을 ‘도파민’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도파민 농도의 문제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화학적인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현대인들에게 더는 생소한 질환이 아니기에 흔히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신 질환 중 하나라는 차원에서 ‘정서적 감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우울증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 몸에 가벼운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약 복용이 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분명 의학적인 기술을 알게 하셨고, 때로는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신다. 더는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느낄 필요가 없고, 죄악시해서도 안 된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까? 성경에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경 인물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려 보자. 이세벨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때 그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

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울증에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엘리야의 격렬한 감정들이 배설되도록 하셨다. 엘리야가 감정을 모두 드러내자 그에게 새 임무를 맡기셨다.

새 임무는 새로운 두 왕과 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다. 혈혈단신 850명과 영적 전투를 치른 엘리야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처럼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을 맡기는 것도 자존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 외로움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주셨다. 제자 엘리사를 붙여주셨다. 또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7천 명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다(사 41:10).

하나님께 매달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약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

님은 이미 당신을 붙잡고 있다.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눈물을 보며, 신음을 듣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자. 모든 치유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통째로 해결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모든 치유의 실마리가 있다는 뜻이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받으라.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과 대화를 놓지 말고, 기도하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분명히 일으켜주신다.



조은광 전도사  
(J4U청년부)

###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 건강한 부부의 네 가지 특징

일정 나이를 지나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몸의 이곳저곳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에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견됐다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모르고 지나쳤으면 큰 병이 될 수 있던 일을 초기 단계에서 치료하는 것이다. 부부관계도 정기적으로 건강한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 부부가 건강한지, 더욱 잘 지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부부 상담 전문가 Long과 Young은 건강한 부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절대적인 신념보다 상대적인 신념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한다. 부부는 함께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가 많다.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물건을 살 때도 있고, 고심하면서 구매하는 값비싼 물건도 있다. 부부가 함께 물건을 고르고, 의견을 나눌 때 자신이 가진 직관이나 신념을 절대화하면 크고 작은 마찰을 경험하게 된다. 물건을 보는 취향이 서로 다르기에 고르는 기준도 다르다. 서로 다른 입장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면 부부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부는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배우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부부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

질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배우자에게 알릴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수용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다. 자신의 신념을 절대적 위치에 놓는 순간 다른 의견을 가진 배우자나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기 쉽다.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태도를 내려놓을 때 부부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건강한 부부는 평생의 연인이며,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 연인이며 친구 같은 부부는 나이가 들어도 친밀감을 유지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 부부가 가까운 사이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아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호의가 있어야 한다. 간혹 어떤 부부를 보면 서로에 대한 애정을 찾아볼 수 없고, 비난하고 질책만 한다. 이 부부에게서는 우정적인 친밀함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부부는 평생의 연인이며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로 우정과 사랑을 유지해야 한다. 우정과 사랑은 매번 서로를 향한 ‘존중’으로 나타난다. 갈등이 많은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 마음을 다해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우정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다.

셋째, 건강한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부부가 갈등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공동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부부의 갈등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갈

등 해결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갈등 해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갈등부터 마음을 모아 해결하는 경험이 쌓여야 한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직면하지 않고 갈등의 자리를 피하기만 하면 인내력과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한다. 부부 갈등 상황으로 변질 수 있는 수많은 일이 가정에서 일어난다. 회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직면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대화해야 한다. 가장 힘든 대화는 부정적인 결론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다. 갈등 상황에서 ‘어짜피 잘 안 될 거야’ 식의 부정적인 결론을 미리 마음에 두고 불편한 말을 주고받는다면 갈등 해결 경험을 쌓기가 어려울 것이다. 긍정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갈등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갈등 상황에서 대화할 때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대화가 말싸움으로 가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다가 말싸움으로 끝나는 패턴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넷째, 건강한 부부는 차원 높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높은 곳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갈등, 힘들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맞추는 차원 높은 믿음이 필요하다. 현실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 눈을 들어야 한다. 눈을 들어서 진흙탕에 빠진 자신과 부부를 구해줄 구원의 밭줄을 잡아야 한다. 건강한 부부는 갈등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자신의 한계와 배우자에 대한 미움과 섭섭한 마음에만 머물지 않는다.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부부가 함께 손잡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용서를 기억하고 적용한다. 건강한 부부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공유할 수 있다. 정리하면, 건강한 부부는 첫째,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잣대를 내려놓고 상대적인 잣대 혹은 유연한 기준을 가지고 대한다. 둘째, 부부는 사랑하는 감정을 유지하면서 가장 격식 없는 친구 사이의 우정을 유지한다. 이 우정은 친밀감과 존경으로 나타난다. 셋째, 부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잘 해결하는 전문가가 된다. 넷째,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낮아짐을 함께 보고 적용할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을 공유한다. 이러한 특징을 부부관계에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하랑센터’

## 다문화 인구와 다음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지난 5월 사회선교축제에 참여한 하랑센터 아이들과 교사, 사회선교부 리더십.

김익래 팀장  
(사회선교본부 다문화  
사역팀 하랑센터 팀장)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주목할 만한 사회적 변화 중 하나다. 주로 국제결혼과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인식과 교육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2023년 국가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구원이 119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한다. 다문화 학생 수는 18만 명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학생의 3.5%에 달한다.

### 하랑센터의 태동과 사역의 성장

하랑센터는 2014년 초, 사회선교본부가 출범하면서 포천지역 다문화 관련 기관을 후원하는 사역으로 시작했다. 2017년 ‘포천 평화의 집’에서 하랑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의 틀을 만들었고, 2019년 10월 포천시 소흘읍의 작은 건물 2층을 임대해서 다문화 차세대들을 위한 현장 사역팀 ‘포천 하랑센터’를 설립했다. 초기 사역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셨다. 그 어려운 시기를 오로지 기도와 사랑, 순종의 인내로 견뎌주신 사역자와 동역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하랑센터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3년여가 지나면서 하랑센터 예배가 자리를 잡아가고, 10명도 채 안 되던 예배 참여 학생이 지난해 5월 30명을 넘었다. 멀리 포천까지 방문해서 예배와 격려, 사랑을 나눠 주시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과 한국어교실 학생 수를 더는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 하랑센터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의 후원 덕분에 2023년 10월 8일 새로운 장소에서 이전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주일 예배 후 학생들의 입맛에 맞춰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음식 덕분에 하랑센터는 포천의 맛

집으로 소문이 날 정도이다. 땀 흘리며 수고해 주시는 사모님과 권사님, 요셉공동체 청년들의 정성과 손맛 덕분이다. 지금 하랑센터 아이들은 훨씬 넓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적 성장과 함께 신체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 사역의 열매와 비전

경기도 포천은 전국에서 이주민 근로자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주민 근로자들이 회사를 안 나가는 일요일 오후에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하랑센터는 인근 이슬람 사원 지도자가 추천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2020년 4월, 3명의 다문화가정 부모들로 시작한 한국어교실이 지금은 등록 인원이 300명을 넘어섰고, 매주 수업에 오는 학생이 총 4개 반에 90명이 넘는다. 주일만 되면 몰려 들어오는 이주민 근로자들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낯을 기대하며 기도로 섬기고 있다. 이런 다문화 부모를 따라 하랑센터로 오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늘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던 아이들, 인생의 목표가 없어서 고민도 없다는 아이들이 하랑센터장님과 선생님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고, 성경 읽기와 쓰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을 거듭했다. 2023년 10월에는 고등부 학생 9명이 요셉공동체 예배에서 세례를 받았고, 2명이 올해 대학에 진학했다. 학생 6명이 일대일제자양육을 받고 있고, 기도회와 토요일 성경 읽기, 큐티 생활화 등을 통해서 신앙 성장을 하고 있다. 매월 2회씩 진행되는 비전특강은 사회 각 분야 전문직 선배들의 신앙간증과 비전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앙의 성장이 아이들의 내적 변화를 가져왔다.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멋진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다. 아이들의 변화와 더불어 학교와 가정생활도 안정되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자존감과 존중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하랑센터는 계속하여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학교 및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위기의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

모들을 향한 복합 가정사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일예배와 성경 공부, 주중 학습지도와 더불어 매년 여름에는 문화탐방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아웃리치, 겨울에는 아이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영성 캠프, 요셉공동체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하랑센터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찾아가고 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아름다운 워십댄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랑센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경을 넓히시는 역사하심을 목도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하랑센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하랑센터 주일예배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장소: 포천시 솔로루로31, 301호  
문의: 010-2727-6674(김익래 팀장)

### 하랑센터 차세대 세레 간증

#### “온 세상에 하나님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1월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한 ‘하랑센터 겨울 영성캠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캠프에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랑센터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고, 제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회개하는 동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죄를 용서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활기찼습니다.

올해 여름 요셉공동체 선생님들과 함께 간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도움과 사랑을 받기만 했는데, 이번 아웃리치에서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덕분에 긍정의 마음, 생각하는 힘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제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 마그렛 학생(고등 2학년, 여)

#### “온 세상에 하나님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주 하랑센터에서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듣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올해 8월 군산에서 열린 하랑센터 여름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장기자랑 시간에 하랑센터 친구들과 함께 찬양과 워십댄스, 무언극을 연기하며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순간 그분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느낌과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한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들을 전도해서 함께 하나님 믿고 천국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느끼게 해 주셨던 따뜻한 사랑을 친구들도 느끼면 좋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유나영 학생(고등 2학년, 여)

####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올해 3월 친구 효빈이를 따라 하랑센터에 왔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지금도 알리지 않고 하랑센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해주셔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매주 하랑센터에서 예배하고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

상 하나님은 나와 친구들, 가족들을 지켜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시지만 부모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전도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 신정우 학생(고등 1학년, 남)

# 필드 위에서 만난 하나님!

CGN 휴먼 다큐 ‘휴먼네켓’, 최경주 프로 출연

CGN 휴먼 다큐멘터리 ‘휴먼네켓’에 최경주 프로(골프선수, 온누리교회 장로)가 출연한다. 휴먼네켓 최경주 프로 편에서는 5년 전 건강 문제로 슬럼프에 빠졌던 그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한 이야기부터 다시 선 필드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그가 골프 선수로 활동하며 직접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한다. 9월 5일(목) CGN 유튜브 채널(오후 5시)과 TV 채널(오전 10시 20분), 기록 OTT ‘퐁당’에서 시청할 수 있다.

CGN 휴먼 다큐멘터리 ‘휴먼네켓’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조명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비기독교인들과 나누



CGN 휴먼네켓 최경주 프로편 스틸사진.

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4월 열린 ‘작이다.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당선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2025년 상반기 결혼예배 예약

10월 1일 오후 7시 양재 드림홀

2025년 상반기(1~6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을 받는다. 10월 1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지하 2층)에서 추천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은 예비신랑, 신부 또는 양가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할 수 있다. 예비신랑과 신부는 등록 교인이어야 한다(타 교회 포함). 결혼예배를 예약하려면 예약금 1백만 원(당일 이체 불가, 현금으로 준비)과 등록교인증명서를 준비해

야 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증명서 발급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예비신랑, 신부가 타 교회 성도일 경우에는 소속 교회의 등록교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결혼예배 추천 당일에는 결혼예배 날짜를 미리 2~3개 선정해서 오는 게 좋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주례는 온누리교회 목사만 가능하고,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드린다. 문의: 02-570-7505

## 서빙고 꿈아이놀이터

영유아 및 교사 모집

서빙고 ‘꿈아이놀이터’에서 영유아와 교사를 모집한다. 꿈아이놀이터는 영유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이다.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1층 레크리에이션실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24~48개월 사이 영유아다. 영아반은 24~36개월 30명, 유아반 37~48

개월 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9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신청 링크(QR 참고)로 하면 된다. 꿈아이놀이터 교사도 모집한다. 데코, 찬양, 반주, 음향, 소그룹 운영, 사진 촬영, 자료 제작 등의 달란트를 가진 성도가 대상이다. 꿈아이놀이터 교사 모임 및 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온누리청소년센터 1층 레크리에이션실에서 한다. 문의: 010-8877-3584



##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말랑가 장로교회 주방 시설 설치

NGO 더멋진세상이 후원자와 협력해서 말라위 말랑가 장로교회에 주방 시설을 설치했다. 말라위 말랑가 장로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영양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지부에서 2021년부터 말라위 말랑가 장

로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영양죽을 지원하고 있다. 죽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시설이 없어서 야외에서 돌과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 사용했다. 이제는 신선한 주방 시설 덕분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영양죽을 조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장학생 11명에게 온소미 장학금을 전달했다.

## 온누리복지재단, 온소미 장학금 전달

청소년, 탈북민, 다문화 가정 등 장학생 57명 지원

온누리복지재단이 지난 8월 13일 11명에게 온소미 장학금을 전달했다. ‘온소미(溫笑美)’는 불우한 청소년, 탈북민, 다문화가정, 선교사 자녀, 신학생들의 학업과 자립을 돕는 장학사업이다. 온소미 장학금은 현재까지 장학생 57명에게 전달했다. 홍준영 학생(대림대 사회복지학

과 1학년)은 “이번 온소미 장학금 수혜 덕분에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후원 문의: 02-3215-3413 / 김다예 기자 daa2@onnuri.org

##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9월 11일부터 서빙고 두란노홀, 양재 드림홀

서빙고와 양재 ‘시니어아카데미’가 개강한다. 서빙고는 9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양재는 9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서빙고는 아이스쿨 또는 목회행정실 및 현장 접수, 양재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65세 이상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5만 원. 시니어아카데미는 성경 속에서 시니어의 믿음과 삶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묵상 큐티’, ‘성경 이야기’, ‘감사로 여는 삶’ 등을 주제로 강의와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2-3215-3533(서빙고), 02-570-7349(양재)

## 한국어 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9월 21일부터 매주 토 오후 7시 온라인

한국어 선교학교 가을학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주차와 10주차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현장 강의를 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한국어 선교학교에는 한국어교습을 통한 이주민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어선교 필요성과 전략, 한국어 선교사의 정체성, 한국어 발음교육론, 한국어 어휘교육론, 한국어 문법교육론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문의: 010-6652-3596

## 제2기 ‘David School’ 참가자 모집

9월 21일과 28일 서빙고 두란노홀

‘제2기 David School’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9월 21일(토)과 28일(토)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QR 코드나 전화로 하면 된다. David School은 입대 이

후에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크리스천 군인의 사명을 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팀장(010-6340-5234) 총무(010-4716-2849) / 김현준 기자



###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일일 39기 결혼예비학교 개회

일일 39기 결혼예비학교가 10월 3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하는 커플,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6년 미만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26만 원. 문의: 02-2078-3263

### 양재 헬로맘 스쿨 참가자 모집

양재 헬로맘 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성도, 아이를 양육 중인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헬로맘 스쿨에서는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부부의 성’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2-570-7349

### 이주민 선교학교 21기 참가자 모집

이주민 선교학교 2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24(위너스 21-2 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3만 원. 참가신청은 10월 2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3388-3974

## ■ 온누리 호스피스 수료 간증



/ 박미우 집사(중계총성교회)

죽음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2017년 7월 17일,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대”라는 남편의 말에 순간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일단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젯밤 병실에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아침에 인사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헤어지면서 아쉬움과 밤새 힘들어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눈앞이 캄캄해졌다. 담도암으로 6개월 선고받고 투병 생활을 하신 아버지, 목을 뚫고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고 춤과 무서웠다고 말씀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왜 그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일까?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에서 교육받으면서 깨달은 게 참 많다. 아버지의 투병 기간이 교육 내용과 접목돼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깨닫는 순간이 많았다. 특히 통증 완화와 환자의 존엄성, 좋은 죽음과 사별 가족 돌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여기저기 꽃혀있는 주사 바늘, 목에 삽입된 기도관, 소변을 빼내는 소변줄 등 아버지의 몸이 고통스럽게 보였다. 아버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면서 겪는 인격적 수치심도 목격했다.

호스피스는 이런 환자들이 품위를 유지하면

서 마지막 삶을 편안히 맞이하도록 돕고, 가족들에게는 사별 이후 애도하면서 삶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께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내드려서 아쉽고 그리웠다.

태어날 아기를 기쁨으로 준비하듯이, 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죽음을 편안히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호스피스 학교로 향하는 목요일 오전을 교육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고, 간증의 시간이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마 25:36).

조원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이 구절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눈물이 흘렀다. 임종기 환자를 돌보는 조력자의 자질이 부족할지라도 온누리 호스피스 교육은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 죽음이라고 한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문의: 010-3412-7966

## ■ 농어촌교회에서 온 편지



/ 이상규 목사(산동교회)

메마른 대지를  
적신 단비처럼!

양재온누리교회 유아부팀과 과천의왕공동체 섬김팀이 충북 보은교회에 내려와 1박 2일 동안 어린이 캠프를 열었습니다.

보은 땅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무더운 여름날 메마른 대지를 적신 단비와 같았습니다.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보은 어린이 캠프가 그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이틀 동안 5개 시골 교회(보은교회, 산동교회, 어부동교회, 예수은혜교회, 평안교회)에서 온 어린이 70명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용사, 다윗!’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팀빌딩 활동과 소그룹 공과 공부, 저녁 기도회, 시원한 물놀이 등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온누리교회 권사님들이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함께 나누며, 육체와 영혼이 모두 충만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영적으로 황폐했던 보은 땅에 하나님의 용사 다윗을 보내신 그분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최민정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에베에설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는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용

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지연 어린이는 “예수님을 부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지난 죄를 회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세훈 어린이는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이 6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기뻐요!”라고 기쁨을 전했습니다. 신수호 선생님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시골 아이들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두 손을 모아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세상 아이들이 인터넷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미래의 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훈련받아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온누리교회의 사랑과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양재 와이미션 수료 간증



/ 김정운 성도(과천의왕공동체)

## 하나님 사랑한다면 ‘선교’

나는 ‘전도와 선교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교도 전도의 큰 틀 속에서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어떤 사람은 선교하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삶에서 전도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 지상명령처럼, 누구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든지 국내에 있든지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과 함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살면서 국내에서 열심히 제자 삼는 사역을 하자”고 했다.

항상 선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선교도 전도의 일종인데 왜 굳이 나가서 선교해야 할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많은 곳이 선교지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20살에 ‘네비게이트선교단’에서 훈련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 그동안 나는 ‘보내는 선교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

각하고 살았는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길은 어떤 나라를 품고 기도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창한 어떤 선교를 꿈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와이미션은 선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선교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면서 선교는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역에서 선교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께 진 영혼의 빛을 갠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선교’라는 것을 배웠다. 배운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겠다.

## ■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최현석, 유송지 부부(서빙고 가정사역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히 사랑하기!

지난해부터 젊은부부학교 참석을 위해 아이들이 40개월 되기만을 기다렸다. 우리 부부는 결혼 이후 아이를 키우면서 별 탈 없이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다. 좋을 때는 한없이 행복한데, ‘왜 느닷없이 싸우게 될까?’, ‘싸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참 많이 고민했다. 젊은부부학교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다 그래. 다들 이렇게 살아’ 하며 어느 정도 묻고 지냈다. 그런데 젊은부부학교를 만나고 난 지금은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왤지 모를 행복한 자신감이 생겼다.

젊은부부학교 1주 차부터 환한 미소로 환영해주시는 조장님과 스테프들이 정말 감사했다. ‘젊은부부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기도가 쌓여있구나’를 알 수 있었다.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다.

매주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만드신 의도와 가정의 원리를 머리뿐만 아

니라 마음과 몸으로 배웠다. 하나님이 연합을 위해 아내를 만드셨고, 부부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원가정에서 상처나 아픔을 받았더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부부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도 가슴 깊이 느꼈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흘려보내려고 서로 노력한 덕분인지 요즘은 날마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체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온전히 누리고 있음을 느낀다. 이제는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게 숙제인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가 아니라 지금처럼 서로를 더 바라보는 게 정답인 것 같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더 열심히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다.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젊은부부학교와 섬기시는 모든 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육신의 선물과 영의 선물 ‘사르밧 프로젝트’



박순길 장로  
(서빙고 이웃사랑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해마다 ‘사르밧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이웃사랑팀 팀원들은 쌀을 보내는 성도들과 쌀을 받은 분들이 보내주는 사연과 소감을 들으며 그간 힘들었던 시간과 피로를 잊는다. 쌀 한 자루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왜 그들은 눈물짓고 감동할까? 바쁜 일상에서 사르밧 프로젝트는 어쩌면 평범한 교회 행사의 하나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 쌀 한 자루는 그냥 값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직접적 은총’이다. 그것으로 고단한 삶을 이겨내고, 잊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재확인한다. 지난해 사르밧 프로젝트가 끝나고 어느 성도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오래전 온누리교회에서 간사로 섬기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몸이 아파 누워 있는 저를 기억하시다니 그저 눈물만 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병을 이겨내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팀원들의 마음이 먹먹해져서 눈물짓던 기억이 있다.

“온누리교회에서 보내주신 쌀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탈북자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먹던 묵은쌀 대신 사르밧 프로젝트에서 보내준 햅쌀에 박수하며 환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수많은 육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고보서> 2장 15-17절 말씀을 주신다. 믿음의 선순환이 ‘금홍과 나눔’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가난한 자

에게 행하며 받을 축복의 진실은 믿음이 먼저 따라야 한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타국에 와서 이사를 줬던 모압 여인 룓에게 보아스가 빵과 물을 주고, 일꾼들에게 그녀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다른 밭에 가서 이사를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십시오”(룓 2:8)라며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금홍의 마음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예수님은 중풍에 걸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에 침상을 달아 내린 네 명의 이웃과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막 2:5)고 칭찬하시며 치료해 주셨다. 사르밧 과부는 하루 치 남은 양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결심으로 거리에 나섰다가 엘리야를 만나 그에게 양식을 몽땅 드렸다.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 안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 안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왕상 17:14)며 축복하셨다. 과부의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 자신의 육신은 물론이고, 가난한 이웃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요즘 세상이 메마르고 각박하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누가 죽어 나가는지 외면한 채 스마트폰과 씨름하고, 반려동물하고만 대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누가 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는 육신의 선물인 ‘쌀’과 영의 선물인 ‘성경’을 나누는 행사로 치러진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르밧 과부와 룓, 중풍 걸린 이웃,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강도 만난 이웃, 이방에서 온 나그네를 향해 나아간다. 온누리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믿음의 후손에게까지 아름다운 사역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김숙경 권사  
(서빙고공동체)

일본의 동경만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다테야마교회’가 있다. 그 교회 목사님을 한국창조과학회 온라인 교육에서 만나게 됐다. 목사님 부부는 보육원을 운영하며 받는 사모님의 수고비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있다. 다테야마교회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3~4명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고자 지난해 그곳을 방문했다.

지난해 10월, 방문 일정을 정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다테야마교회를 위한 선교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중에 예기치 않게 화가를 동행하게 하셔서 조용한 시골 작은 교회에서 그림 전시회와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특강을 열었다. 다테야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밝게까지 모든 작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그 덕분에 짧은 시간에 멋진 전시 공간이 마련됐다. 전시회를 통해 교회 옆에 사는 요시다 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다.

2024년 새해 첫 예배를 뉴욕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딸과 다테야마교회에서 드렸다. 예배 시간에 딸이 특주를 했고, 다테야마교회 성도들이 무척 좋아하셨다. 그 모습을 본 딸이 여름에 선교를 위한 콘서트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 제안을 들은 바로 그날 리더십 회의에서 콘서트 장소로 다테야마의 콘서트홀을 대관하기로 했다. 할렐루야! 느닷없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러브소나타 in 다테야마’가 시작됐다.

조용한 시골 동네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회가 주관하는 콘서트에 사람들이 얼마

나 올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이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헌신으로 콘서트를 준비했다. 지난 8월 3일, 다테야마교회 성도들이 아침부터 콘서트홀에 와서 정성을 다해 관객 맞을 준비를 했다. 연주 시작 1시간 전, 드디어 관객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공연장에 들어섰다. 마을 특성상 노인들이 많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데려왔다. 빈 좌석이 많을까 염려했던 우리의 염려와 달리 객석 300석이 거의 찼다.

연주자는 두 명이였다. 딸의 줄리어드 동문인 믿음 좋은 친구가 찾아왔다. 두 딸은 자비량으로 비행기 표를 끊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했다. 연주 시작 타종이 울리고 드디어 연주회가 시작됐다. 초록색과 빨간색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했다. 아름다운 선율에 매료된 관객들이 기뻐했다. 마음이 활짝 열린 일본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메시지가 20여 분 넘게 이어졌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피날레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장식했다. 콘서트를 마치고 설문 조사를 했는데, 30여 명이 복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5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선교 콘서트를 통해 조용한 시골의 다테야마교회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몸시 사랑하는 딸들이 매년 선교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교회에서 챙겨주신 연주비도 “하나님께 드린 연주예요”라며 헌금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때로는 버거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믿음을 이어가는 딸들의 행보가 참 예쁘고 감사하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복음 전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신앙에세이



채현석 선교사  
(동대문중앙공동체)

우리의 옛 선교지 T국에 다녀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지 못하다가 다시 찾은 게 5년 만이다. T국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모임 팀원 4명이 함께 다녀왔다. T국은 동서로 길고 드넓은 나라다. 이번에는 서부의 다섯 개 도시와 동남부의 다섯 개 도시를 방문하기로 했다. 서부지역은 우리가 T국에 있을 때 모두 돌아본 곳이지만, 동남부 지역은 가보지 못한 곳들이라 기대도 되고,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 염려도 되었다. 이번 여행의 목표는 소도시에서 외롭게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 격려하기, 가급적 많은 도시에서 선생님들

의 기도제목 파악하기, 동남부 도시를 방문해서 그곳의 영적 상황 배우기, T국에 있을 때 사권 현지인 부부에게 복음 전하기 등이었다.

출발 전 준비는 3개월 동안 기도 모임과 수차례에 걸친 일정 조정하기, 현지 동남부에 가서 이용할 차량과 기사(현지인 성도)에게 연락해서 준비시키기, 현지 선교사가 원하는 집 챙기기, 선물 준비하기, 전도지와 전도용품 준비하기 등이었다. 적지 않은 경비는 하나님 은혜로 공급해 주셨다. 경비 절감을 위해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서 환승하는 지루함이 있었지만, 염려하던 짐 분실 등 없이 T국에 잘 도착했다.

첫 방문지는 ‘P 도시’였다. 이곳에 있는 P 사도의 무덤과 기념교회당 터를 돌아보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Ra 교회당 터를 돌아볼 수 있던 게 큰 감동이었다. Ra 교회 터는 <요한 계시록> 7대 교회 중 하나다. 폐허로 버려져 있었는데 관광자원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정부에

서 다시 복원해 제법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신약성경 시대의 교회당은 아니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시대에 지어진 기념교회당이겠지만, 고색창연한 유적에 옛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 잘 투영돼 있었다.

그다음으로 중북부 ‘K도시’를 방문했다. 이 도시에는 우리 기도팀과 오래 연락을 주고받는 선생님 부부가 있다. 이들은 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에서 어렵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근래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황이다. K도시에 도착해서 그와 동역하는 다른 선생님 부부와 함께 식사하고, 도시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의 옛 성곽 옆 카페에서 담소를 나눴다. 교제 가운데 이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었다. 우리의 방문이 많은 격려가 됨도 느낄 수 있었다.

수도인 ‘A도시’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과 식사하며 사정을 듣고 격려하

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항공편으로 동남부 ‘D도시’로 이동했다. 며칠 동안 D, U, H, Ma, Mi 등 도시에 있는 구약성경의 유적과 시리아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등을 돌아봤다. 무슬림 나라인 이곳에 정교회의 옛 교회당과 수도원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정교회 교우들이 기독교 신앙 전통을 잘 지키며 당당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놀라웠다. 개신교회와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한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기도제목을 간직하고 돌아왔다.

우리가 T국에 있을 때 처음 거주하던 ‘B도시’를 방문했다. 현지인 친구 집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전도용 소품을 가져가 전함으로 짧은 시간 안에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우리가 귀국한 이후 현지 선생님들과 교제하며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번 여행의 목표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전히 맑고, 드넓은 선교지 T국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전 7:20 비전홀

**화요일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신동아 쇼펍센터 3층(302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010-5766-446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시온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환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 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기홍 팀장(010-9990-2875)

**58기 젊은부부학교 지원자 모집**  
일시: 10월 12일~11월 2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9시  
장소: 서빙고&부천온누리교회  
회비: 28만 원(10/5까지 입금시 25만 원)  
신청: 카카오톡에서 '온누리젊은부부학 교' 검색 후 신청서 작성, 아이스쿨  
문의: 남편(010-8922-1826), 아내(010-5237-7237)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6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시온팀 의료진 모집**  
모집: 치과(사역 시작 9월)  
내용: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균 팀장(010-3388-533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1, 3주 주 일 연습은 10월부터 재개)  
장소: 서빙고 온누리청소년수련관 청소 년프로그래스 II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김미현 010-8285-643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콘텐츠팀 웹/앱 기획자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본사)  
마감: 9월 8일(주일)  
접수: www.duranno.com/recruit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온라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아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가족예배** 10:30 B2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09:00 B2 분당 / 2부 11:30 B2 분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분당 행복한하나예 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외국어예배** 중국어예배 14:00 B1 소예배실 / 힌디 어예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 네팔어예 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3F 꿈아이홀 / 유치부 11:30 3F 꿈이툼홀 / 유년부 11:30 2F 드림홀 / 초등 부 11:30 4F 비전홀 / 중등부 11:30 교육관 3F 믿음 홀 / 고등부 11:30 교육관 3F 소망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 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바울로부터

## [메시지 트립]

**CGN** 선교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의 감동을 그대로!  
바울·성지 전문가와 함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    | 트립일정                | 강사                             | 금액     |
|----|---------------------|--------------------------------|--------|
| 1차 | 9/30 - 10/9 (10일)   | 이영철 목사<br>국제사도바울센터 원장          | 353만 원 |
| 2차 | 10/14 - 10/24 (11일) | 김동문 선교사<br><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저자 | 373만 원 |
| 3차 | 11/18 - 11/28 (11일) | 이익상 목사<br><이스라엘 따라 걷기> 저자      |        |

## ✈ 그리스 경로

아테네(아텐) - 고린도 - 겐그리아 - 베리아(베뢰아) - 데살로니가 - 빌립보 - 까발라(네압볼리)

## ✈ 튀르키예 경로

에베소 - 밀레도 - 파묵칼레(히에라볼리) - 안탈라(앗달리아) - 비시디아 안디옥 - 꼬냐(이코니온) - 루스드라 - 이스탄불

- \* 풍당에서 다큐 <바울로부터>를 꼭 시청해주세요!
- \* 모든 참가자들에게 <바울로부터> 도서와 워크북을 지급합니다.
- \* 상기 금액은 가이드·기사 팀, 튀르키예 파묵칼레 카트 투어, 세계 5대 박물관 중 하나인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관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30만원 상당)

